구름 위에서 무진공양 올리니 법계가 따뜻하네

㉔ 비어있지 않은 절터 굴산사지

겨울비가 내리는 날 강릉시 구정면(邱井面) 학산리(鶴山里)로 스며듭니다. 마을 중간쯤에 차를 세우고 가늘게 내리는 빗줄기에 몸을 맡깁니다. 마을의 중심을 지키는 키 큰 소나무들이 겨울비를 맞으며 승천을 시도하는 듯합니다.

굴산사지(掘山寺址). 신라말의 대가람 굴산사는 지금 겨울비에 젖는 조용한 마을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 당우의 반경이 300m가 넘었고 상주 승려는 200명이 넘었다는 절터는 평범한 마을의 논과 밭으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군데군데 옛 영화의 징표가 있어 다행입니다. 굴산사를 창건하여 구산선문의 사굴산파를 이루었던 범일(梵日, 810~889)국사도 오늘까지 대관령 서낭신으로 추앙되고 있으니 빈 절터가 그냥 비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넘어 온 대관령 방향의 웅장한 산세는 한 폭의 병풍으로 둘러져있습니다.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운무가 병풍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을은 조용하고 산은 묵직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승천하는 운무만 세상이 살아 있음을 알리는 듯합니다.

먼저 우물터를 만납니다. 석천(石泉)이라 부르는 이 우물터는 마을의 중앙에 있는데 범일국사의 탄생과 관련 있는 설화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사각형의 우물은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고 그 위에 머리를 잃어버린 돌부처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물을 지키는 신력을 가졌다고 믿기에 그렇게 허전하게나마 모셔둔 것 같습니다.

마을의 한 처녀가 아침에 우물에서 물을 뜨는데 바가지에 해가 담겨 있었다. 처녀는 물을 버리고 다시 뜨니 역시 해가 들어 있었다. 기이하게 생각하여 물을 마셨는데 그날로부터 태기가 있었다. 이윽고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 동네 뒷산 학바위 아래 버렸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못해 다음날 가보니 새와 짐승들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비범하게 생각하여 다시 데려다 길렀는데 후에 스님이 되어 도를 이루었다. 그가 범일국사다.

학산리에 전해오는 범일국사의 탄생설화는 전남 영암 구림마을에서 태어난 도선국사의 탄생설화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미 설화 속에 등장하는 '바가지 속의 해'가 국사의 이름 '범일'에 날일자를 들어가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뒷산의 학바위는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학바위에 올라서서 생각해보니 이 마을은 지명과 인명에 이미 굴산사의 체취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구정면의 정(井-우물), 학산리의 학(鶴-학바위), 굴산사의 굴(掘-우뚝함), 범일국사의 일(日-해) 이 글자들이 신라 이래로 굴산사 터를 지켜 오는 중요한 기표인 것입니다.

❶

❷

❸

❹

❶ 범일국사의 부도와 소나무. ❷ 범일국사 탄생설화의 현장인 학바위 ❸ 석천 ❹ 굴산사지 당간지주는 현존 최대의 크기를 자랑한다

지대석 비해 받침돌 작은 이유 구름 강조 위한 것

학산마을 '석천' '학바위' 등 범일국사 탄생설화 흔적 고스란히 전해

청빈한 가풍 작은 몸돌이 상징, 화려한 좌대 '눈길'

이제 범일국사의 것으로 전해지는 부도(보물 제85호)를 친견할 차례입니다. 범일국사의 부도는 주인이 떠나버린 빈 집 곁에 서 있습니다. 205Cm 높이에 매우 화려한 조각이 돋보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빈집 마당을 지나 부도 앞에 이르러 선채로 합장삼배를 올립니다. 선 채로 말라버린 고춧대들도 조석으로 부도를 향해 합장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1200년 전에 세운 부도와 지난 봄에 심어져 한 살이를 마치고 말라버린 고춧대가 한 풍경 속에 들어 있으니 그 둘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독창적인 기법이 눈을 끌어당깁니다. 가장 독특하게 보이는 것은 제법 넓은 지대석위에 화려한 구름문양의 좌대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상당히 좁은 단을 받치고 하대석과 중대석 상대석을 차례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잘록한 받침돌 위에 올린 하대석은 각을 생략한 원형인데 구름문양이 매우 화려합니다. 중대석도 뭉글뭉글 피어 오르는 구름을 새기고 중간 중간 비천상과 공양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상대석은 두툼한 연잎이 위를 받치는 형상인데 연잎 속에 다시 꽃무늬를 돋을새김 하여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유산답사회가 1994년에 간행한 <답사여행의 길잡이 3> 동해 설악편(돌베개)의 사진(170쪽)에는 이 부도의 구름문양 좌대가 없습니다. 아마 그 후에 사지를 정비하는 과정에 발굴된 좌대를 끼워 넣은 듯합니다.

범일국사 부도의 하대석에 새겨진 구름 문양을 보다가 대관령 쪽 산위의 구름을 바라봅니다.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간 운무가 구름으로 떠 있는 그 장면에서 부도의 팔각받침이 작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대석과 중대석의 구름문양을 강조하기 위해 받침돌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침돌을 대폭 줄임으로써 하대석은 허공에 떠 있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시 구름이 흐르고 천인들이 공양을 올립니다. 그 공양을 연잎으로 받들어 올리니 몸돌의 법일국사 사리가 무량한 설법을 펼쳐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일국사를 향한 공양은 구름 위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무진 공양을 올리니 우주 법계는 언제나 따뜻하고 중생의 발길은 항상 부처님을 향해 갑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이 팔각으로 다듬은 몸돌은 범일국사의 청아한 가풍일 것입니다. 그런데 몸돌에 비해 옥개석이 지나치게 큽니다. 때문에 부도가 전체적으로 장엄한 맛을 내지 못합니다. 몸돌의 높이를 제한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역시 절제된 수행생활, 범일국사가 이룬 가풍의 일면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법일국사는 중국에 유학하는 동안 많은 선지식들을 만납니다. 마조선사의 제자인 제안선사에게 이 한 마디를 듣고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러나 범일국사와 굴산사에 대한 사료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마친 범일국사는 귀국하여 강릉지역의 막강한 토호세력 김순식의 지원 아래 굴산사를 창건해 선풍을 드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라가 망하고 궁예의 시대도 왕건의 고려창업으로 막을 내린 뒤 토호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고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굴산사도 피폐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대의 고승 범일국사의 탑호는 연휘(延徽)로 전해집니다. 부도를 세웠으니 탑비를 세우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도 앞에는 한 그루 소나무가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300여년은 되어 보이는 소나무는 "여기 옛 스승의 아름다운 생애와 고준한 덕을 간직한 부도가 있노라"라고 외치며 성역을 지키는 신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뜰 앞의 잣나무'가 선승들의 화두라면 '부도 앞의 소나무'는 역사의 현장을 지키는 호법신장인 것입니다.

당간지주(보물 제86호) 앞에 섭니다. 주눅이 듭니다. 높이 5.4m의 웅장한 당간지주입니다. 물론 현존하는 당간지주 가운데 가장 훤칠합니다. 논 가운데 우뚝 선 이 당간지주가 굴산사의 앞마당쯤이었다면 학산리는 전체가 전각들로 가득 찬 대가람이었음이 분명하겠습니다. 지주의 키를 고려해 볼 때 여기 세웠을 당간대는 20m가 넘었을 것이고 그 끝에서 나부끼는 깃발은 또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갑니다.

지금 들판은 비어 있지만, 한 때 끊어지지 않는 염불과 식을 줄 모르는 수행의 열기가 가득했을 도량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는 빗줄기 사이로 목탁소리가 건너옵니다. 굴산사라는 이름을 계승하고 있는 조그만 암자하나가 보입니다. 좁은 법당에는 석조비로자나부처님이 긴 세월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앉아 계십니다. 100세가 가까워 보이는 노보살님이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합니다. 무슨 경을 외는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노보살님의 정성어린 예불이 균형미와는 다소 거리가 먼 돌부처님을 빙그레 미소 짓게 합니다.

부처님이 미소 짓는 날, 일체중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의 진리로 통하는 날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행복을 감염시킨 행복 바이러스

붓다의 행복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일해야 하고, 사회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인생에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시한다.

행복한 삶이란 즐겁게 사는 것이 기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라.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의 저자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스님이 쓰고
『1리터의 눈물』을 번역한 한성례 선생님이 번역한 행복 쓰나미.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지음 한성례 역 | 46판 양장 | 198쪽 | 값9,500원

민족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모든 종교의 알맹이는 신앙과 수행이다.
그 중에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의문이 생길 때
이 책은 수행법 전반에 대한 알기 쉽게 소개한 수행의 입문서이다!

김방룡 지음 | 신국판 | 208쪽 | 값9,500원

불교수행법

불교수행법의 핵심적인 문제만을 뽑아 소개
"절 수행 · 간화선 · 염불 수행 · 위빠사나 수행 · 간경 수행
사경 수행 · 계율과 참회 수행 · 사불 수행 · 조사선 · 주력 수행"

누구나 이 책으로 불교 수행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